

광주만의 콘셉트·시대 트렌드 선도할 마케팅 등 혁신 필요

창설 30주년 광주비엔날레, 베니스비엔날레서 길을 찾다 (하)

근본적 문제는 재단의 '매너리즘' 국제미술축전 면모 찾기 힘들어 전시 퀄리티·조직의 전문성·역량 부재 등 창설 30주년 명성 '무색' 올해 주제 '판소리, 모두의 울림', 소리로 공간 구현 가능할 지 우려

베니스=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지난 4월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의 비아 가리발디(Via Garibaldi) 거리에 때 아닌 판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4월20일~11월24일)를 기념해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아 의욕적으로 기획한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우리가 되는 곳'(베니스 홍보관)의 개막식이 열린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니콜라 부리오 제15회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미술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제1회 대회의 화제작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대상 수상작)와 5·18 희생자의 정신을 기린 백남준의 '고인돌'(재단 소장) 등을 둘러 보며 광주비엔날레와 오는 9월 개막하는 제15회 행사를 알렸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5월 말, 기자가 찾은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은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개막식의 뜨거운 열기와 달리 전시장은 안내를 맡은 2명의 직원 외에는 관람객들이 거의 없어 썰렁했다. 전시장인 '비안코 아트 스페이스(II Giardino Bianco Art Space)'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행사장(자이르디니, 아르세날레 전시관)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도 별다른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안내를 맡고 있는 프란체스카 씨는 "평일에는 평균 50명 안팎, 주말에는 100~200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는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온 시그문트 스타우스(Sigmund Staus)씨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2~3년 정도 방문

했지만 광주비엔날레는 처음 들어왔다"면서 "전시된 작품이나 자료가 충분히 않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고인돌'을 접할 수 있어 신선했다"고 말했다.

'아시아의 넘버 1', '세계 5대 비엔날레'를 자임하는 광주비엔날레는 예상과 달리 국제미술현장에서는 '신인'에 가까웠다. 물론 큐레이터나 갤러리스트, 미술계 인사들 사이에는 인지도가 있지만 대다수 관광객들에게는 무명에 가까웠다. 전시장에서 만난 몇몇 관람객에게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물었지만 대부분 '처음 들어본다'는 답이 많았다.

반면, 베니스 비엔날레는 달랐다. 전시장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난 상당수가 이탈리아 출신이 아닌,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 외국인이었다. 일부러 여름 휴가에 맞춰 비엔날레를 관람하기 위해 온 평범한 이들이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유료 방문객 80만 명(전년 대회 보다 35% 증가, 하루 평균 4062명 관람) 가운데 59%가 외국인이며 이탈리아인은 41%로 나타났다.

하지만 50만 명(무료 관람 등 포함)을 기록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외국인 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데다 개막식 전후에만 외국작가와 큐레이터를 제외하면 아시아 등 외국인 관람객을 보기 힘들다. 물론 매년 전 세계에서 3200만 명이 다니다가 폐기 구제하인 미술관 등 관광명소가 많은 베니스를 광주와 비교하는 건 무리다.

문제는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고 있지만 국제 미술축전다운 면모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12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니스가 해를 거듭할 수록 퀄리티 높은 전시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계 최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 기념 특별전 '마당-우리가 되는 곳'(베니스 비엔날레 홍보관)을 찾은 독일 관람객들이 제1회 광주비엔날레 대상작인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를 감상하고 있다.

고(最高)의 자리를 구가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엔날레 재단의 '매너리즘'이다. 비엔날레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시의 퀄리티와 유능한 감독 선임 등 조직을 지휘하는 수장의 전문성 부재가 크다.

대표적인 예가 이번 베니스 홍보관이다. 남의 집 '잔치'에 판을 벌여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알리려는 취지에서 재단이 기획했지만 정작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도 회의적으로 생각했을 만큼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단은 2년 전부터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예산 15억 원을 특별 편성했다. 여기에 올해 대회 전시예산 48억원, 홍보비 10억 원 등 총 7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부족한 예산은 1회 대회부터 적절한 기금 275억 원에서 15억 원을 빼내 사용했다. 한푼이라도 기금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 말이다.

무엇보다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은 창설 3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무색하게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비엔날레 구성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조직을 떠나면서 역량을 쌓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이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리더십도 미흡한 탓이다.

특히 비엔날레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시'에 대한 재단의 '시스템'도 아쉬운 대목이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올해 대회로 정한 니콜라 부리오 감독은 소리를 공간으로 해석해 연출하는 신 개념의 '소리 풍경'(sound scape)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예술감독의 의도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미술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직과 전시, 운영 등을 총괄하는 수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미술평론가 정준모씨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아트페어에 비해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매회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30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비엔날레가 지속가능한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콘셉트와 재단의 대표 및 조직의 역량 강화, 시대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마케팅 등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park@kwangju.co.kr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밀집해 있는 거리에 자리한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전경.

'4인 4색' 무용수 기량 뽐낸다

광주시립발레단, 7월 4~5일 '발레살롱콘서트2-단원 안무전'

단원들의 기량을 가능하고, 실력을 선보이는 발레 콘서트.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이 '발레살롱콘서트2-단원 안무전'을 오는 7월 4~5일(5일 오후 7시 30분, 6일 오후 8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친다.

박 예술감독의 비전 중 하나인 '단원 안무전'은 단원들의 기량 증진과 미래 안무자 양성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다. 하승수, 공유민, 곽지오, 노윤정 단원이 출연해 4인 4색 안무를 보여줄 예정이다.

먼저 공유민 단원은 '이어도사나'를 선보인다. 뱃사람들의 삶과 인생무상, 이상향의 동경을 그린 동명의 제주 민요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다. 주역으로 황유정, 김도영이 출연할 예정이며 다양한

솔리스트들의 안무, 앙상블 등을 볼 수 있다. 이어 곽지오는 이태원 참가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작품 '10.29'로 관객들을 만난다. 강은혜가 주역을 맡으며 허요환, 이기형 등이 참여하는 트리오 무대도 준비돼 있다.

인간의 회한, 미련을 몸짓으로 형상화한 '지나야 보이는 '희' 후회'는 하승수 단원이 안무를 구성했다. 주역에 황유정, 김도영, 곽지오 노윤정은 무용수들의 화려한 순간과 그 이후의 삶을 표현한 'New Birth'를 보여준다. 특히 발레단에 입단한 지 20년이 넘는 노 씨는 지난해 하 씨와 함께 각각 'Preview 2023'·'4Basic Emotion' 등에 참여했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기성 안무에서 보기 어렵던 참신함, 도전정신 등이 깃들여 있는 독특한 안무들



발레리나 공유민 발레리노 하승수

이 관객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공연으로 10월 18~19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펼칠 예정인 희극 낭만발레 '코펠리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석 2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전시실 풍경.

맑고 따뜻한 서정... 임병남 '외출' 전

오늘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조형성과 색채풍경의 조화. 임병남 작가의 작품은 정겹고 따스하다. 오랜 벗을 만난 듯 편안하면서도 여유롭다. 시간을 두고 한 자리에서 작품을 보면 지나온 시절의 추억과 풍경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작품이 지닌 힘이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19일까지 열리고 있는 임병남 '외출' 전. 물감과 캔버스가 발현하는 마티에르는 소박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작가의 내면에 깃든 풍경들은 남도인, 한국인이 라면 지나왔을 지난 시간의 흔적들일 것 같다.

단순화된 풍경과 사람 그리고 사물은 한데 어우러져 있다. 도드라지지 않고 배경은 배경대로, 인물은 인물대로, 자리를 차지해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 버릴 것은 버리고, 생각할 것은 생각한 데서 오는 효과다.

'외출'은 10년의 공백을 깨고 전시를 한 데서 불어온 주제다. 모두 50여 점의 그림에서는 자신만의 심미안을 추구해온 작가의 오랜 내공이 느껴진다. '맑은 쓸쓸함'이랄까, '따스한 외로움'이랄까, 무겁거나 부정적인 감성과는 다른 담백한 아우라이자 맑은 서정이다.

전시실 정면에 걸린 '움라우우 설정'은 우리 산하, 남도의 풍경을 담았다. 스위스 라우터브룬 계곡에 솟은 봉우리이지만 아국적이지 않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설산 풍경을 화폭에 옮겨온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심마'

이와 달리 '빨간 지붕'과 '유채마을', '가을산', '4월의 봄날', '5월의 유채꽃'은 화사하면서도 담백하다. 본질을 추구해가는 작가의 여정이 그려지며 우리네 마음의 고향을 사유하게 한다.

신시호 학에서는 "무기교의 미학은 자연의 그것과 비슷하다"며 "작가가 보여주는 무심한 듯 단순한 조형과 시크한 색채의 표현은 영특한 어린아이의 감성과 같이 천진난만하다"고 평했다.

박광국 한국미술 광주지회장은 "작가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눈빛으로 소통하고 진지한 자세로 탐구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작품세계이기에 이번 전시를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전했다.

한편 임 작가는 조선대 미대와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서영대 디자인과 교수를 역임했다.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전, 무등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저마다 다른 크기의 대나무들이 한데 모여 '공명유희'

국립남도국악원, 22일 공명콘서트

해의 페스티벌에서 두각을 보인 국악 그룹. 유쾌한 퍼포먼스로 전통 음악의 세계화 가능성을 열어보인 국악 앙상블.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오는 22일 오후 3시 국악원 전야당에서 '공명콘서트-공명유희'를 선보인다. 창작국악그룹 '공명'을 초청해 타악, 관악기 앙상블을 감상하는 시간이다.

올해로 데뷔 27주년을 맞이하는 '공명'은 세계 60여 국가에서 200여 회 퍼포먼스를 선보여 온 국악 그룹이다. 직접 고안하고 제작한 대나무 악기 '공명' 등을 활용해 이색적인 연주를 하고 있다.

강렬한 북소리, 까마귀 울음을 형상화한 태평소 음색이 돋보이는 '전쟁과 평화'로 시작한다. 전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대금 선율에 담은 곡이다. 이어 기린 모양 별자리를 형상화한 곡 '기린자리', 소금-태평소-공명 등이 어우러지는 '통해야가 울려 퍼진다'.

전통 선율이 능계 가락을 자신들만의 느낌으로 표현한 '놀자', 켈메 및 에그 웨이크 등 간단한 타악



타악그룹 '공명'이 직접 고안하고 제작한 대나무 악기 '공명(共鳴)'을 연주하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기로 구성된 '해바라기'도 레퍼토리에 있다. '파도의 기억'은 파도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고 그 모습이 어떻게 상상하며 만든 작품이다.

북청사자놀이 선율을 모티브로 연주하는 '흥', 유년 시절의 추억을 회상시키는 노래 '보물섬'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 밖에도 여행과 사랑의 가치를 조점화한 곡 '위커바웃', 옛모리장단을 활용한 '위드씨' 등을 연주한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자연과 사랑을 노래하는 곡부터 한 사람이 여러 공명악기로 리듬과 앙상블을 만드는 곡 등 독창적인 국악 작품들이 준비돼 있다"며 "서로 크기가 다른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악기 '공명'의 멜로디를 감상하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관람(진도음사무소, 국악원, 오산초, 의신중 등 거치는 셔틀버스 운행) /최류빈 기자 rubi@